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1. 24(일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신윤근, 사무관 류나린, 주무관 홍창빈 • ☎ (044) 201-4207, 4215, 4216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황금의 나라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로 하늘길 넓어져

브루나이와 직항편 자유롭게 개설 가능

- 브루나이와 직항 자유화가 달성되어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브루나이와 11월 24일 서울에서 항공회담*을 개최하여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양측은 합의하였다.

* 수석대표: (우리측) 어명소 항공정책관

(브루나이측) Haji Hairul Mohd Daud Haji Abdul Karim 항공국장

- 이번 항공회담은 한-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, 양측의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할 한국과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.

[한국-브루나이 전체 최근 3년간 수송통계]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총계	연평균 증가율
공급	876	31,452	37,026	69,354	550.1%
수송	468	16,997	23,623	41,088	610.5%

□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'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'04년에 처음으로 양국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하였으며, '15년 항공회담에서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.

* '19년 동계기준 '인천-반다르스리브가완' 노선을 로얄브루나이항공이 주4회 운항중

□ 4년만에 개최된 금번 항공회담을 통한 직항자유화 합의로 한국과 브루나이는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, 운항횟수,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,


○ 타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(예:브루나이→중국→한국)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하여 타국으로 운항(예:브루나이→한국→미국)할 수 있는 권리는 주4회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었다.

□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ASEAN 국가로 풍부한 산유국이며 다양한 천연자원 덕분에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(2019년 기준 2.7만불, 출처:IMF)이다.

○ 직항자유화로 브루나이와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,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자유화를 달성하게 되어 아세안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○ 이번 합의를 통해 브루나이와 인적·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,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공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류나린 사무관(☎ 044-201-42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